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- **미 CEO 경제 신뢰지수 상승:** 미 CEOs 신뢰지수가 지난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. 오늘 목요일 컨퍼런스 보드의 CEO들 설문 조사에 따르면 CEO들의 미 경제에 대한 신뢰지수가 올해 1분기에 9포인트 상승한 60이다. 50을 기점으로 '신중한 낙관주의'에서 '확실한 낙관주의'로 바뀌게 된다.
- 134명의 미 CEO 중에 73%는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노동력을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. 그러나 현재는 '낮은 채용과 낮은 해고'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아틀랜타 연준 총재, “불확실성에도 올해 금리 인하 2차례”
- WSJ: 1월 연준 의사록 “금리 입장 관망하겠다”
- Bloomberg: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
- FinanceYahoo: 미 중부 아틀랜타 제조 모멘텀 둔화 신호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소매 판매 둔화 우려 가운데 증시 하락세

[트럼프 행정부]

- FinanceYahoo: 트럼프, “연방 정부 절감액, 미국인에 돌려준다” 시사
- WSJ: 관세 시행되면 미 전력 시스템에도 여파 줄 수 있어

[뉴욕/뉴저지 교통]

- CNNBusiness: 트럼프 연방정부, 뉴욕시 혼잡세 폐지 추진
- Bloomberg: 뉴저지 트랜짓 노후화로 승객들 불만 폭증

[주택]

- CNBC: 기후 변화 인한 비용 증가로 미 주택 시장 가치 약 1조 5천억불 손실 가능성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월마트, 호황기 이후 매출 증가세 둔화 우려
- Bloomberg: 아마존, 월 20불로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제공한다
- Bloomberg: 알리바바, AI 투자 확대와 정부 관계 회복 속 급부상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's Bostic Sees Two Cuts in 2025 Amid Uncertain Outlook 아틀랜타 연준 총재, “불확실성에도 올해 금리 인하 2차례”

- 아틀랜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전망을 둘러싼 연방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해도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- 물론 그는 “이는 나의 기본적인 예상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많은 변수가 있다”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.
- 그는 “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, 이른바 무역, 이민, 에너지, 재정 정책 등 높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연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”라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WSJ: Fed Minutes Reveal Little Appetite for Near-Term Rate Cuts **1월 연준 의사록 “금리 조치, 관망 입장”**

- 1월 연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관망 입장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.
- 어제 수요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가자는 현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.
- 파월 의장도 1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“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전에 인플레이가 실제 회복세를 보이는지,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이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Tick Up Slightly, in Line With Pre-Covid Level

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

-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주 큰 변동 없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며, 근로자에 대한 견조한 일자리 수요를 시사했다.
- 연방 노동부는 2월 15일 마감 주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천 건 증가한 21만 9천 건을 기록했으며, 이는 전문가 예상치(21만 5천 건)를 상회한다고 금일 목요일 발표했다.
-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청구 건수는 187만 건으로 증가했다.
-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가 실업수당 신청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FinanceYahoo: U.S. mid-Atlantic factory momentum slows as price inputs surge

미 중부 아틀랜타 제조 모멘텀 둔화 신호

- 2월 미 중부 아틀랜타 지역의 공장 생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투입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- 트럼프가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시행되기 이전인데도 생산 재료에 지불하는 비용이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했다.

-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 지수는 목요일에 26.2 포인트 하락해 지난 5년간 최고로 낮아졌다. 즉 1월의 44.3(지난 4년간 최고치)에서 18.1로 떨어졌다.
- 비용 지분 지수는 1월의 31.9에서 지난 2022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40.5를 기록했다.

FinanceYahoo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Fall as Walmart’s Warning Hits Retailers: Markets Wrap

소매 판매 둔화 우려 가운데 증시 하락세

- 최고치를 보였던 미 증시는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소매 경제에 대한 우려 전망을 보이면서 하락했다.
- 지난해 20% 이상의 수익을 올린 미 주식은 올해 들어 다른 지역의 증시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, 투자자들은 관세, 인플레이, 지정학적인 요소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. 단기적으로는 S&P 500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.
- S&P 500은 0.8% 줄었고 나스닥 100은 1% 감소했다. 다우존스는 1.3% 하락했다. 1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.50%를 보인다.
- 한편, 연방 재무부 장관인 Scott Bessent는 연방 부채 발행에서 장기 국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FinaceYahoo: Trump Floats Giving DOGE Savings to Public, Defending Cost Cuts

트럼프, “연방 정부 절감액, 미국인에 돌려준다” 시사

-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연방 비용 절감으로 부터 얻는 돈을 미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또 다른 일부는 연방정부 부채 감소에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.
- 그는 “절감액이 엄청나다”면서 “연방정부효율부가 절감한 액수의 20%는 납세자에게, 또 다른 20%는 연방 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방안을 검토 중”이라고 말했다.
- 가구당 세금 환급액으로 5천 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FinanceYahoo 기사

WSJ: How Tariffs Could Shock America’s Power System
관세 시행되면 미 전력 시스템에도 여파 줄 수 있어

-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의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.
- 전력 업계는 이미 변압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관세가 이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켜 전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.
- 관세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리쇼어링 할 경우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망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[뉴욕/뉴저지 교통]**CNNBusiness: Trump administration moves to kill New York City's congestion pricing****트럼프 연방정부, 뉴욕시 혼잡세 폐지 추진**

- 맨해튼 60번가 아래로 운행하는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주요 인프라 재원을 늘리고 맨혼잡한 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.
-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수요일, 연방 교통부 장관이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“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통행세 부과 승인을 취소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서한에서는 이번 통행세가 미국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며,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뉴욕시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.

CNNBusiness 기사

Bloomberg: 'NJ Transit Is Ruining My Life': Commuters Reach Breaking Point With Aging System**뉴저지 트랜짓 노후화로 승객들 불만 폭증**

- 뉴저지 트랜짓은 매주 72만 1천 명이 이용하는데, 지난해에만 서비스 지연과 운행 중단으로 약 5만 9천 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.
- 승객 불만 사항에는 장시간 운행 지연, 해충 감염된 버스 상태 등이 포함되며, 팬데믹 이후 급증한 승객 수,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, 자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.
- 일부 뉴욕시 통근 승객들은 “매일 기차 연착으로 해고 위험까지 있다”며 “뉴저지 트랜짓이 내 삶을 망치고 있다”고 불만을 토로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**CNBC: U.S. housing market could lose nearly \$1.5 trillion in value due to rising costs of climate change****기후 변화 인한 비용 증가로 미 주택 시장 가치 약 1조 5천억불 손실 가능성**

- 기후 위험 분석 회사인 First Street의 분석에 따르면, 2055년까지 미국 주택의 84%가 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, 손실액은 총 1조 4천7백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인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이른 시기지만, 보험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전국 부동산 가치에 영향이 있을 예정이다.
-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, 플로리다, 루이지애나의 약 12개 카운티에서 주택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.
- 투자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DeltaTerra Capital의 설립자 데이브 버트 (Dave Burt)는 향후 5년 동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주택의 최소 20%의 가치가 30%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WSJ: Walmart Warns of Slower Sales Gains After a Bumper Year**
월마트, 호황기 이후 매출 증가세 둔화 우려

- 월마트 실적은 기대치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 회계연도의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이익 목표치로 인해 주가가 6% 하락했다. 즉, 내년도 매출과 수익 전망치가 전문가들 예상치 아래로 책정된 것이다.
- 월마트의 CFO Rainey는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관세로 예상되는 영향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다만, 월마트는 올해의 재무 전망에는 이러한 관세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Amazon Offers Regional Sports Networks as a \$20-a-Month Add-On
아마존, 월 20불로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제공한다

- 아마존의 Prime Video는 Main Street Sports Group과의 계약을 통해 월 20달러 추가 요금으로 16개의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.
- 과거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(Diamond Sports Group)으로 알려진 Main Street는 2023년 파산을 신청했으며, 스포츠 베팅 플랫폼 FanDuel과 명명권(Naming Rights Agreement) 계약을 맺고 아마존과 다년간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정비되었다.
- 해당 신규 서비스는 막대한 부채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케이블 TV 고객들의 이탈로 인해 2023년에 문을 닫을 뻔했던 메인 스트리트의 전환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Alibaba Surges as Comeback for Jack Ma's Empire Takes Hold
알리바바, AI 투자 확대와 정부 관계 회복 속 급부상

- 중국의 인터넷 선구기업인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수익 증가로 2020년 정부 규제 이후 최대 매출 상승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.
- CEO Eddi Wu는 향후 3년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, AGI(범용 인공지능)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경쟁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. 목요일 뉴욕 시장 개장 이후 주가는 11% 상승했다.
- 공동 설립자 Jack Ma가 시진핑 주최 정상 회담에 참석하며,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- 알리바바의 AI 모델 Qwen이 공식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. 또한, 애플이 중국 내 아이폰에 해당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**美연준 위원들 "관세, 물가에 영향...금리 신중히 접근해야"
1월 FOMC 의사록 "높은 수준의 불확실성...이민자 추방도 변수"**

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에 미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며,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.

19일(현지시간) 공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은 참석 위원들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"목표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"고 전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